OPEN ACCESS

#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 A Study on the Information Povert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ased on Chatman's Information Poverty

민수진 (Soo Jin Min)**
이용정 (Yong Jeong Yi)***

## 초 록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 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정보빈곤의 개념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응을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 〈우리온〉을 통해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100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만" 변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한국사회적응을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변수의 조작화를 통해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poverty on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daptation to South Korea based on Chatman's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1996). Based on the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poverty consists of four variables: Secrecy, Deception, Risk-taking, and information acceptance in response to situational relevance. An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daptation to South Korean life is divided into socia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From August 4 to August 30, 2021, after approval by the IRB through the North Korean refugee support organization 〈Urion〉, surveys were conducted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at least one year and were aged 19 or older. The 100 collected vali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information pover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In particular, the "deception" variable had negative effects on soci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study has theoretical implications that it explains North Korean refugees' adaptation to South Korea based on Theory of Information Poverty by defining them as information poor. Above all, it attempts a quantitative approach through operationalization of key concept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were conducted with qualitative approaches.

키워드: 정보빈곤, 정보 행태, 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 양적 연구
information poverty, information behavior, social adaptation, north korean refugees, quantitative study

---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요약하였음.

**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졸업(minsj1230@g.skku.edu)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부교수(yjyi@g.skku.edu)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19일 ■ 최초심사일자 : 2022년 8월 30일 ■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7일
■ 정보관리학회지, 39(3), 241-261, 2022. http://dx.doi.org/10.3743/KOSIM.2022.39.3.241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 론

1948년부터 시작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현재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통일부, 2019a). 그리고 이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은 일자리를 알선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통일부, 2019b).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시 타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조동운, 2015).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 12명이 재입북을 시도하였고, 64명이 제3국에 난민 자격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권태훈, 2019).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장준오, 고성호, 2010). 2012년에 68명이던 북한이탈주민 수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5명으로 집계되었다(조정훈, 2017).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에 관한 문제를 정보빈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빈곤층(Information Poor)과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Thompson, 2007). 특히 Chatman(1996)은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행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전문용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는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에 대한 정의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보빈곤에 대한 관심과 학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제환, 2019).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정보빈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지은(2018)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관련 정보요구 및 정보행위를 연구하였고, Koo(2016)는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가 정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 문제를 정보빈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조용완(2006)의 연구가 유일하며, 이후 후속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최신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대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며 삶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서옥연, 장덕현, 2008).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에서 정보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Yu, 201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정보빈곤은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1 이론적 배경

#### 2.1.1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정보빈곤층(Information Poor)과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부터 학술적으로 논의되었다(Thompson, 2007). 특히, Chatman(1996)은 여성 수감자, 은퇴 여성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행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미국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에 정보빈곤 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발표하였다. 그는 정보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이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먼저, 은폐는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을 막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나 문제 상황을 숨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만은 정보를 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은폐와 기만은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정보나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타인은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정보행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험감수는 정보를 공유했을 때의 위험 정도를 판단한 후, 그 판단에 따라 정보 공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빈곤층은 정보 공유에 따른 위험이 크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관련성이란 유용성(utility)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빈곤층은 정보탐색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기방어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더욱 멀어지게 된다(Chatman, 1996). Chatman 이후에도 정보빈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들의 정보빈곤 및 정보빈곤층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정보빈곤 및 정보빈곤층에 대한 정의

| 연구자 | 정의 |
|---|---|
| Goulding(2001) |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고, 정보의 가치를 알지 못하며, 정보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 |
| Britz and Blignaut(2001) |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과 그 정보를 해석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 |
| 이제환(2006) | 정보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에 대해 무지하며, 이러한 정보원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 |
| 조용완(2006) | 개인 혹은 집단이 마주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활용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태 |
| Daza and Gigler(2007) | 정보화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결핍된 상태 |
| Sabelli et al.(2013) | 정보요구의 충족,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 |

#### 2.1.2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에 직계가족, 배우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으며,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596호). 대한민국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통일부, 2019a). 정부는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을 원하는 북한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또는 제3국에서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통일부, 2019b).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외교부가 신원 확인을 완료하면 해당 국가와의 외교 교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진행되며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은 국정원의 주관 아래 신원 및 입국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가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가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에서 12주간 기초적인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초기 정착지원 안내 등 정규 프로그램과 언어, 운전 등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3만 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2020년 229명 대비 72.5% 감소한 63명으로 집계되었다(나원호, 2017; 통일부, 2019a; 2022).

### 2.2 선행연구

#### 2.2.1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의 시기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국외 연구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보화를 경험한 서양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가 수행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는 주로 전문직 및 일반인의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 한편, 1980년대부터는 소수민족, 도시빈민, 여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정보행태와 열악한 정보환경을 다룬 연구가 수행되었다(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Chatman(1991)은 특정 계층이 유용한 정보원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계층인 대학 청소부의 정보행태와 이들의 정보빈곤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노동자계층은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정보행태는 그들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외부 정보원이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빈곤층의 이러한 정보행태는 이후 Chatman(1996)이 발표하는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에서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이라

는 개념으로 규정되었다. 이어서 Chatman(1992)은 은퇴한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은퇴 여성들은 서로 개인적인 문제나 정보를 감출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정보행태 역시 후에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을 통해 설명되었다. 즉, 정보빈곤층이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신의 문제 상황이나 약점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보빈곤층의 이러한 특성은 외부 정보원과의 단절을 초래하여 정보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Chatman 이후에도 정보빈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Spink, Cole(2001)은 정책이주촌인 와인우드(Wynnewood)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보환경을 비롯한 정보행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와인우드 거주민들은 정보를 탐색할 때 공식 채널보다 가족이나 이웃 같은 비공식 채널 즉, 대인 정보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탐색해야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들이 제한된 정보 채널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ersberger(2001) 및 Markwei, Rasmussen(2015)은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노숙자들이 경험하는 정보빈곤을 연구하였다. Hersberger(2001)에 따르면, 노숙자들은 재정이나 양육 등의 문제에서 비롯된 정보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친구와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대인 정보원에 의존하는가 하면, 주거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정보 공유를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Risk-taking)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atman, 1996). Markwei, Rasmussen(2015)도 Hersberger(2001)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노숙자들이 정보요구 해결을 위해 친구나 가족 등처럼 접근성과 신뢰도가 높고 이용이 편리한 대인 정보원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2) 국내 연구

조선족 출신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H의 정보빈곤을 연구한 이제환과 윤유라(2005)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보빈곤에는 정보 가치에 대한 낮은 인지 수준, 언어 장벽, 정보 획득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같은 개인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덕현(2005)은 저소득층이 경험하는 정보빈곤에 주목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도시 저소득층도 일반인과 동일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지만 열악한 정보환경과 정보빈곤층 특유의 정보행태 즉, 정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이웃이나 가족 같은 비공식 채널을 통한 정보 입수의 경향이 그들의 정보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환(2006)은 재일한인 집단의 열악한 정보환경을 조명하고, 문자해독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및 일본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모국지향적인 태

도를 지닌 한인 2세~4세가 상대적 정보빈곤층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심층면담과 설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를 연구한 조용완(2006)은 북한이탈주민이 정보 입수를 위해 가족과 같은 대인 정보원에 크게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취업, 복지혜택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것이 남한사회 정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보빈곤을 유발하는 내재적 원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소극적 성향, 부족한 정보활용능력, 언어소통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정보환경적 원인으로는 수요자인 북한이탈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정보지원체계, 미비한 협력 네트워크를 언급하였다. 이후 연지은(2018)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취업 관련 정보요구와 정보행위를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지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 사회적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제도적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과 관련된 정보요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정보빈곤층은 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나 가족과 같은 대인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외집단의 정보빈곤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주로 참여관찰, 면담과 같은 질적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개념인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 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을 적용하여 정보빈곤을 연구하기보다 정보빈곤층이 열악한 정보환경 속에서 정보를 탐색하는 방식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정보빈곤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는 2000년대에 멈추어 있어 비교적 최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적응 및 정착 문제를 정보빈곤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조용완(2006)의 연구가 유일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2.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대해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응의 하위 요인은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 그리고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될 수 있다(신예정, 2000).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적응을 경제적 상황에 대한 만족도, 수입 현황, 그리고 경제활동 실태로 세부적으로 나누었고, 심리적 적응은 자아정체감과 심리상태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적응의 하위요소는 사회활동 형태,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 정도,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하였다. 사회 적응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력이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경제적 적응이었다. 반면, 심리적 적응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회적 적응에 대해서는 적응과 부적응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

무, 경제활동 여부, 그리고 고용 형태 등이 북한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춘범, 한기주, 2017),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주목한 이인희, 최희정(2017)의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불안, 우울, 희망, 직업 안정성, 건강상태, 그리고 직업의 유무 등을 파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조사한 이재민, 황선영(2008)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 경제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 네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적 요인의 연령, 학력, 건강상태와 함께 경제적 요인 중 직업 만족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요인으로는 남한사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및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는 인식 등으로 파악되었다.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북한 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한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 분석을 실시한 연구(김재엽, 최지현, 류원정, 2012)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할수록 한국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동기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의 차이를 연구한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2013)는 탈북 동기에 따라 환경적 적응에는 차이가 없지만 심리적 적응에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경제형과 미래형 동기로 인해 탈북을 결심한 사람이 사회형과 정치형 동기를 가지고 탈북한 사람보다 심리적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심리적 적응이 특히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정착지원 정책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나원호(2017)는 경제적 지원, 기관단체 지원, 정보적 지원, 교육 지원으로 구성된 정착지원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적 및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제적 지원과 기관단체 지원은 문화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는 대부분 그들의 심리적 요인이나 정착지원정책 등과 연관지어 연구되어 왔으며, 북한이탈주민을 정보소외계층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경험하는 정보빈곤이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각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하위요소는 심리적 적응으로 나타났다. 다른 하위요소인 사회적 적응은 명칭은 다르지만 환경적 적응과 문화적 적응의 내용을 포함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는 〈표 2〉와 같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

〈표 2〉 한국사회적응 하위요소

| 연구자 | 한국사회적응 하위요소 |
|---|---|
| 신예정(2000) | 경제적 적응, 심리적 적응, 사회적 적응 |
| 이재민, 황선영(2008) | 단일차원 |
|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2012) | 단일차원 |
|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2013) | 환경적 적응, 심리적 적응 |
| 나원호(2017) | 경제사회적 적응, 문화적 적응, 심리적 적응 |
| 이인희, 최희정(2017) | 단일차원 |
| 조춘범, 한기주(2017) | 단일차원 |

로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보빈곤 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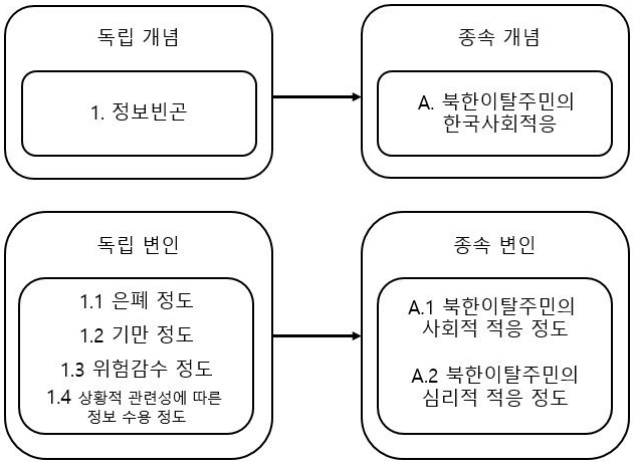
- 가설 1.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위험감수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위험감수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 정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도식화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3.2 연구 설계

### 3.2.1 연구 대상 선정

연구 수행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해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정




〈그림 1〉 연구 모형

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의 경우, 효과크기(Effect size)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Power) 0.80으로 설정한 결과 85명의 표본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문지의 미회수율과 응답의 성실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100명을 표본 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정보빈곤 경험과 한국사회적응을 판단할 때 국내 거주 기간과 연령에 영향받을 것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제한하였다.

### 3.2.2 측정요소 및 설문 구성

#### 1) 측정요소

##### (1) 정보빈곤(Information Poverty)

정보빈곤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Chatman(1996)이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한 네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양적 질문을 구성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즉, 정보빈곤을 은폐(Secrecy) 정도, 기만(Deception) 정도, 위험감수(Risk-taking) 정도,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은폐 정도와 기만 정도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측정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Larson, Chastain(1990)의 자기은폐 개념에 기반하여 자기은폐척도를 개발한 상담심리 분야 박미란, 이지연(2008)의 설문 항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또한 위험감수 정도 역시 양적으로 측정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Knowles et al.(1973)의 위험감수척도(Risk-Taking Questionnaire: RTQ)를 번안 및 재구성한 심리학 분야 이홍표(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Chatman(1996)은 상황적 관련성에 대해 "개인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변인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로 변인명을 수정하였다. 또한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문헌정보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양적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 (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학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연구한 신예정(2000)이 변인으로 설정한 경제적 적응,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중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을 구분하였다.

#### 2) 설문 구성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정보빈곤 관련 16문항, 한국사회적응 관련 20문항, 인구통계학

적 질문 6문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빈곤 관련 문항 중 위험감수 정도에 대한 1문항과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 관련 문항 중 심리적 적응에 관한 10문항은 역코딩이 필요하도록 설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 문항 구성

| 변인(문항 수) | | 설문내용 | 출처 |
|---|---|---|---|
| 정보빈곤 (16) | 은폐 정도 |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나 경험이 있다. | 박미란, 이지연 (2008) |
| | | 나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은 감추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
| | |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점은 말하고 싶지 않다. | |
| |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 | |
| | |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를 그들이 알게 되더라도 도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 기만 정도 |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다. | |
| | | 나에 대한 부정적인 문제나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 |
| | | 나의 비밀에 대해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 |
| | |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 | |
| | 위험감수 정도 |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더라도 항상 신중하게 알아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흥표 (2002) |
| | | 나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적인 정보를 감추는 편이다. | |
| | |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 |
| | |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은 피하는 편이다. | |
| |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 나는 유용한 정보이더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 - |
| | | 나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는다. | |
| | | 나의 매일 매일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한국사회 적응 (20) | 사회적 적응 정도 | 나는 한국의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다. | 신예정 (2000) |
| | | 나는 한국의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다. | |
| | | 나는 한국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다. | |
| | | 나는 한국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다. | |
| | | 나는 북한 사투리나 외래어 등의 언어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 |
| | | 나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 |
| | | 나는 한국 생활을 잘해나가고 있다. | |
| | | 나는 주말이나 휴일과 같은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 |
| | | 나는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 | | 나는 사회단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 | 심리적 적응 정도 | 한국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이상하게 쳐다본다. | |
| | |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아직까지 낯설다. | |
| | | 나는 한국생활이 타향살이라는 느낌이 든다. | |
| | |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신경쓰인다. | |
| | | 나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될 때가 있다. | |
| | | 혼자 있으면 두렵고 마음이 안 놓인다. | |
| | | 나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 |
| | | 나는 한국에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 |
| | |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 |
| | | 나의 장래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 |

###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계수를 통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및 분석

### 4.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포에 앞서, 연구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집단인 것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File No. 2020-03-018-004)을 받았다.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며, 2021년 8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우리온〉을 통해 설문지 100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00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 4.2 빈도 분석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 100명 중 여성이 89명(89%), 남성은 11명(11%)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나이의 경우, 30대가 43명(43%)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34명(34%), 40대 16명(16%), 50대 5명(5%), 60대 이상 2명(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29명(29%),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재학이 각각 25명(25%), 대학원 재학 이상 12명(12%), 고등학교 중퇴, 대학교 중퇴, 기타가 동일하게 3명(3%)으로 드러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 39명(39%), 회사원 23명(23%), 무직 15명(15%), 기타 12명(12%), 전문직 7명(7%), 자영업 4명(4%)의 순이었다. 또한 결혼 상황은 53명(53%)이 미혼이었으며, 결혼 35명(35%), 이혼 9명(9%), 사별, 동거, 기타가 각각 1명(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평균 가계소득은 2천만원 이하가 62명(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천만원 이하가 13명(13%), 4천만원 초과 5명(5%)의 순이었고 20명(20%)이 응답하지 않았다.

### 4.3 신뢰도 분석

정보빈곤과 한국사회적응을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보빈곤과 한국사회적응의 하위 요인에 대해 각각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위험감수 항목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0.7 이상으로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지만 위험감수 항목은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0.350으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에서 제거하였으며, 설문지에서도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표 4〉 신뢰도 분석 결과

| 개념 | 변인 | 문항 수 | Cronbach's alpha |
|---|---|---|---|
| 정보빈곤 | 은폐 | 5 | .798 |
| | 기만 | 4 | .817 |
| | 위험감수 | 4 | .350 |
| |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 3 | .772 |
| 한국사회적응 | 사회적 적응 | 10 | .758 |
| | 심리적 적응 | 10 | .923 |

### 4.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주요 변수인 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은폐 정도는 기만 정도($r=.645$, $p<.001$),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r=.233$, $p<.05$)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r=-.206$, $p<.05$), 심리적 적응($r=-.381$,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기만 정도는 사회적 적응($r=-.289$, $p<.01$), 심리적 적응($r=-.425$,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사회적 적응($r=-.225$, $p<.05$)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은 심리적 적응($r=.528$),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기만 정도,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 4.5 가설 검증

#### 4.5.1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사회적 적응,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설 1.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 변인 | 1 | 2 | 3 | 4 | 5 |
|---|---|---|---|---|---|
| 1. 은폐 정도 | 1 | | | | |
| 2. 기만 정도 | .645*** | 1 | | | |
| 3.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 .233* | .174 | 1 | | |
| 4. 사회적 적응 | -.206* | -.289** | -.225* | 1 | |
| 5. 심리적 적응 | -.381*** | -.425*** | -.112 | .528*** | 1 |

*$p<.05$, **$p<.01$, ***$p<.001$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4.155,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7%($R^2$=.115, $_{adj}R^2$=.087)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2.196으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기만 정도(B=-.163, p<.05)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은폐 정도(p=.981)와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p=.07)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p=0.05)보다 크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 가설 2.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8.014,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7.5%($R^2$=.200, $_{adj}R^2$=.175)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7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기만 정도(B=-.305, p<.05)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은폐 정도(p=.142)와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p=.855)는 유의확률이 유의수준(p=0.05)보다 크게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 4.5.2 가설 검증 결과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이 북한

〈표 6〉 가설 1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VIF* |
|---|---|---|---|---|---|---|---|
| | | *B* | *S.E.* | *β* | | | |
| 사회적 적응 | (상수) | 4.374 | 0.267 | | 16.378*** | <.001 | |
| | 은폐 정도 | 0.002 | 0.085 | .003 | 0.024 | .981 | 1.757 |
| | 기만 정도 | -0.163 | 0.079 | -.259 | -2.061* | .042 | 1.714 |
| |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 -0.117 | 0.064 | -.181 | -1.833 | .070 | 1.059 |
| *F*=4.155(p<.01), $R^2$=.115, $_{adj}R^2$=.087, *D-W*=2.196 | | | | | | | |

*p<.05, **p<.01, ***p<.001

〈표 7〉 가설 2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 종속 변인 | 독립 변인 | 비표준화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VIF$ |
|---|---|---|---|---|---|---|---|
| | | $B$ | $S.E.$ | $\beta$ | | | |
| 심리적 적응 | (상수) | 5.195 | 0.401 | | 12.944*** | 〈.001 | |
| | 은폐 정도 | -0.189 | 0.128 | -.179 | -1.479 | .142 | 1.757 |
| | 기만 정도 | -0.305 | 0.119 | -.306 | -2.565* | .012 | 1.714 |
| |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 -0.018 | 0.096 | -.017 | -0.184 | .855 | 1.059 |
| $F=8.014(p<.001)$, $R^2=.200$, $_{adj}R^2=.175$, $D\text{-}W=1.974$ | | | | | | | |

*$p<.05$, **$p<.01$, ***$p<.001$

〈표 8〉 가설 검증 결과 요약

| | 가설 | 채택 여부 |
|---|---|---|
| 1 |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부분 채택 |
| 2 | 정보빈곤(은폐 정도, 기만 정도,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부분 채택 |

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설 1과 2가 부분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 문제를 정보빈곤이라는 정보행태론적 틀에서 고찰하기 위해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이 한국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보빈곤이론을 바탕으로, 정보빈곤을 은폐(Secrecy), 기만(Deception), 위험감수(Risk-taking), 상황적 관련성(Situational relevance)에 따른 정보수용이라는 네 가지 변인으로 구성하였으나 신뢰도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감수 항목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적응은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도가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은폐 정도와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

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빈곤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도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은폐 정도와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기만 정도만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감추려는 "은폐"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려는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보다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려는 "기만"이 더욱 적극적인 자기방어기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만 정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밝힘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어지고, 이는 한국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 심리학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Chatman(1996)의 정보빈곤이론(Theory of Information Poverty)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정보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정보빈곤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둘째, 정보빈곤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심층면담과 같은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Chatman의 정보빈곤이론에서 은폐, 기만, 위험감수,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라는 네 가지 주요 개념을 도출하여 설문을 통한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주관성을 보완하여 정보빈곤이론의 일반화를 시도하기 위해 정보빈곤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보빈곤에 대한 양적 측정도구는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은폐 정도, 기만 정도, 위험감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담심리 및 심리학 분야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상황적 관련성에 따른 정보 수용 정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는 그동안 질적 연구로만 진행되었던 정보빈곤에 대해 계량적으로 측정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담심리 및 심리학 분야의 은폐, 기만, 위험감수 개념도 정보빈곤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자체적인 측정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뢰도 분석 결과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 중 위험감수 정도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Cronbach's α)가 수용 가능한 수준보다 낮게 나왔다. 따라서 정보빈곤을 구성하는 변인에서 위험감수 항목을 제거하고 설문지에서도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위험감수를 측정하는 항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위험감수 측정 항목을 심리학 분야 연구에서 차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위험감수는 정보빈곤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으로, 정보빈곤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위험감수 측정 항목을 수정 및 개발하여 가설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명확하지 않은 설문 문항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이 설문 응답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은폐와 관련된 첫 번째 문항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문제나 경험이 있다"에서 "다른 사람들"이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빈곤이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정보빈곤층은 아웃사이더(outsider)로 분류되며 이들은 평범한 다수의 집단인 인사이더(insider)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폐, 기만과 같은 자기방어기제는 주로 인사이더를 향하게 된다(Chatman, 1991). 즉, 위와 같이 은폐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의 모호함은 설문 응답에 대한 정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사이더)만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한 북한이탈주민이 신변 보호를 위해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 신변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북한이탈주민의 성향이 정보빈곤층의 특성 중 "기만"이라는 행태로 발현되어 설문에 사실과 다르게 응답했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계좌정보와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신변 노출의 위협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역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보빈곤층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물론, 이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권태훈 (2019.10.16.). 박주선 "최근 5년간 탈북민 12명 재입북 시도 적발." SBS 뉴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1528

김재엽, 최지현, 류원정 (2012). PTSD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 자아탄력성, 사회적 교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4), 343-367.

https://doi.org/10.16999/kasws.2012.43.4.343
나원호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관계망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미란, 이지연 (2008). 자기은폐 척도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9(4), 1547-1565. https://doi.org/10.15703/kjc.9.4.200812.15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596호.
서옥연, 장덕현 (2008). 발달장애아 가족의 정보빈곤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107-128.
신예정 (200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삶과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연지은 (2018).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관련 정보 요구 및 정보 행위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이인희, 최희정 (201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1(2), 341-352. https://doi.org/10.5932/JKPHN.2017.31.2.341
이재민, 황선영 (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33, 61-84. https://doi.org/10.15855/swp.2008..33.61
이제환 (2006). 재일한인의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3-58.
이제환 (2019). 소수자의 정보빈곤과 도서관의 책무.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31.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1
이제환, 윤유라 (2005). 외국인 노동자 H의 삶과 정보빈곤.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1), 181-202.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2004).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5(2), 1-23.
이흥표 (2002). 비합리적 도박신념, 도박동기 및 위험감수 성향과 병적 도박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장덕현 (2005).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빈곤 양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219-236.
장준오, 고성호 (2010).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6.
정정애, 손영철, 이정화 (2013). 북한이탈주민의 탈북동기와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2(2), 215-248.
조동운 (2015).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2), 427-449.
조용완 (2006).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행태와 정보빈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조정훈 (2017.9.25.).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통일뉴스. 출처: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67

조춘범, 한기주 (2017).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남한사회적응정도의 차이와 남한사회 적응실태: 경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1), 271-292. https://doi.org/10.22446/mnpisk.2017.11.1.011

통일부 (2019a).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2019b). 2019 통일백서.

통일부 (2022). 2022 통일백서.

Britz, J. J. & Blignaut, J. N. (2001). Information poverty and social justice. South Afric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67(2), 63-69.

Chatman, E. A. (1991). Life in a small world: applicability of gratification theory to information-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6), 438-449. https://doi.org/10.1002/(SICI)1097-4571(199107)42:6<438::AID-ASI6>3.0.CO;2-B

Chatman, E. A. (1992). The Information World of Retired Women. Westport: Greenwood Press.

Chatman, E. A. (1996).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r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3), 193-206. https://doi.org/10.1002/(SICI)1097-4571(199603)47:3<193::AID-ASI3>3.0.CO;2-T

Daza, G. B. & Gigler, B. (2007). The concept of information poverty and how to measure It in the Latin American context. Semantic Scholar. Available: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The-Concept-of-Information-Poverty-and-How-to-It-in-Barja-Gigler/e71b2ea31cf3760ef87e39a3beb6a85a75e220d9?p2df

Goulding, A. (2001). Information poverty or overload?.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33(3), 109-111. https://doi.org/10.1177/096100060103300301

Hersberger, J. A. (2001). Everyday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ources of homeless parents.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Studies of Information Seeking in Context, 2, 119-134.

Knowels, E. S., Cutter, H. S. G., Walsh, D. H., & Casey, N. A. (1973). Risk-taking as a personality trai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 123-129. https://doi.org/10.2224/sbp.1973.1.2.123

Koo, J. H. (2016). Information-seeking within negative affect: lessons from North Korean refugees' everyday information practices within PTS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285-312. http://doi.org/10.4275/KSLIS.2016.50.1.285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yschology, 9(4), 439-455. https://doi.org/10.1521/jscp.1990.9.4.439

Markwei, E. & Rasmussen, E. (2015). Everyday lif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marginalized youth: a qualitative study of urban homeless youth in Ghana. International Information & Library Review, 47(1-2), 11-29. https://doi.org/10.1080/10572317.2015.1039425

Sabelli, M., Rasner, J., Giffoni, M. C. P., & Pedrosian, E. A. (2013).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focused on young people and adolescents within the field of public health. In Handbook of Research on ICTs and Management Systems for Improving Efficiency in Healthcare and Social Care. Hershey: IGI Global, 247-267.

Spink, A. & Cole, C. (2001). Information and poverty: information-seeking channels used by African American low-income household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45-65. https://doi.org/10.1016/S0740-8188(00)00067-0

Thompson, K. M. (2007). Furthering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literacy through the social study of information poverty. The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31(1), 87-115.

Yu, L. (2010). How poor informationally are the information poor?: evidence from an empirical study of daily and regular information practices of individuals. Journal of Dicumentation, 66(6), 906-933. https://doi.org/10.1108/00220411011087869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ang, Duk-Hyun (2005). Information poverty of the urban poor and the role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an ethnograph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1), 219-236.

Cho, Choon-Bum & Han, Ki-Ju (2017). Differences in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aptation in South Korea. Multiculture & Peace, 11(1), 271-292. https://doi.org/10.22446/mnpisk.2017.11.1.011

Cho, Dong-Woon (2015). A study on the plan of early settlement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4(2), 427-449.

Cho, Jung-Hun (2017. September 25.). Increase in North Korean defectors dealing with narcotics. Tongil News. Available: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67

Cho, Yong-Wan (2006). Information Behavior and Information Poverty of North Korean Refugee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Jang, Joon Oh & Ko, Sung Ho (2010). North Korean defectors: crime & countermeasur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port.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10-6.

Jung, Jung-Ae, Son, Young-Chul, & Lee, Jeong-Hwa (2013). A study on defecting motive and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Unification Policy Studies, 22(2), 215-248.

Kim, Jae Yop, Choi, Ji Hyeon, & Ryou, Won Jung (2012). Impact of PTSD on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adjustment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social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343-367. https://doi.org/10.16999/kasws.2012.43.4.343

Kwon, Tae-Hun (2019. October 16.). Park, Joo-sun "Caught 12 North Korean Refugees attempting to re-enter North Korea in the past 5 years." SBS News. Available: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81528

Lee, Heung Pyo (2002). The Relationship of Irrational Gambling Belief, Gambling Motive, and Risk Taking with Pathological Gambling.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Lee, In Hee & Choi, Hee Jung (2017). Factors influencing soci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e, 31(2), 341-352. https://doi.org/10.5932/JKPHN.2017.31.2.341

Lee, Jae Min & Hwang, Sun Young (2008).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Social Welfare Policy, 33, 61-84. https://doi.org/10.15855/swp.2008..33.61

Lee, Jae-Whoan & Youn, You-Ra (2005). Life and information poverty of foreign labor 'H'.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1), 181-202.

Lee, Jae-Whoan (2006). Information pover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33-58.

Lee, Jae-Whoan (2019). Information poverty of min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ibrarie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1-31. https://doi.org/10.16981/kliss.50.4.201912.1

Lee, Jae-Whoan, Lee, Yeon-Ok, & Chang, Duk-Hyun (2004). Methodology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of minority group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5(2), 1-23.

Ministry of Unification (2019a). 2019 Handbook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Refugees.

Ministry of Unification (2019b). 2019 Unification White Paper.

Ministry of Unification (2022). 2022 Unification White Paper.

Nha, Wonho (2017). The Impact of Settlement Support for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ir Social Adjustment: Analyzing the Social Network Effects.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Act No. 18596.

Park, Mi-Ran & Lee, Jee-Yon (2008). Construct exploration and validation of self-concealment scale.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4), 1547-1565.
http://doi.org/10.15703/kjc.9.4.200812.1547

Seo, Ok-Youn & Chang, Durk-Hyun (2008). Information poverty viewed through the famili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107-128.

Shin, Ye-Jung (2000). A Study on the Social Life and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ociology, Ewha Womans University.

Yeon, Jieun (2018). Employment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Behavior of North Korean Refugee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Yonsei University.